

2. 經濟 關聯法 改定이 企業에 미치는豫想效果

- 정기국회에 상정된 경제관련 법안의 주요 취지는 UR시대에 맞도록 國內法을 整備하고 그에 대비하여 國家競爭力を 向上시키는 데 있음
-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미치는效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1) 국제규범에 맞는 국내법 개편 ⇒ 대내외 경쟁 촉진 효과
 - 2) 공정거래정책 및 산업정책과 관련된 법 개편 ⇒ 투자 전환 촉진 효과
- 法違反으로 인한 損失 및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 損傷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요망됨

- 제170회 정기 국회에서 심의되는 경제 관련 법안의 주요 취지

- UR 時代에 걸맞게 法 改定

- 대외무역과 관련된 법률을 개편하여 마찰 가능성을 해소시킴
- 금융, 보험, 서비스업 등을 추가 개방함

- 國家競爭力 強化

- 각종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체질을 제고시킴
- 산업관련 정책을 개편하여 취약산업의 육성 및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시킴

- 이러한 목적하에 제·개정되는 각종 법률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效果는 대내외 경쟁 촉진 효과와 투자 전환 촉진 효과가 있음

1) 對內外 競爭 促進 效果

- 輸出 關聯 制度 改編

- 수출보조금 성격을 지난 산업설비 수출기금을 폐지함
- 산업설비 수주계획 신고제도를 폐지시키고 국내 기업간 해외 입찰경쟁을 제고시킴
- 무역대리업의 진입규제를 철폐시켜 무역회사의 설립을 자유화함

- 輸入 規制 制度 改編

- 각종 수입규제 관련 제도를 UR협정과 일치시켜 수입규제를 완화함

- 外國人의 差別待遇 撤廢와 外國人 投資 促進

- 정부조달시장과 보험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외국인 차별을 철폐 함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민원처리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을 추가 확대시킴

2) 投資 轉換 促進 效果

- 公正去來 政策 變更을 통한 大企業의 投資 轉換 效果
 - 계열기업에 대한 투자 억제 효과: 출자 총액 한도를 40%에서 25%로 하향 조정, 각종 과징금의 신설 및 상향 조정
 - SOC, 주력기업,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 SOC 민자유치에 관한 출자규제 예외 인정, 업종전문화와 관련된 출자규제 예외 인정, 국제계약 신고제를 폐지하여 첨단기술 도입 기회 확대
- 尖端 產業으로의 投資 轉換 效果
 -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과 특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부가통신산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통신 사업의 진출을 가능하게 함
 - 정보처리 서비스업과 경영컨설팅업 등 지식집약산업과 지원서비스산업을 공업 발전법상의 지원대상으로 편입시킴

○ 企業에게 주는 意味

- 대내외적인 경쟁의 심화는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
- 對大企業政策에 있어서 公正去來法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법률 위반에 의한 금액 손실(과징금 등)뿐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關聯 法의 熟知 및 公正去來法 전담 기구 등 적절한 대응 체제가 필요함
- 법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첨단 산업과 비제조업 부문의 다양한 지식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법률안과 함께 추가적으로 수정되는 각종 施行令 등에 대한 내용 및 수정방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여 경영 계획의 수립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經濟 關聯 3個 常任委員會의 主要 審議 法案 >

該當 常任委	主要 法案	核心 內容
行政 經濟委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법률 개정안 • 下都給去來에 관한 법률 개정안 • 消費者 保護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出資總額限度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하향 조정 (경과기간 3년), 出資規制適用 除外(소유분산 및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 SOC 투자와 관련된 출자, 非主力企業의主力企業에 대한 출자), 각종 과징금의 상향조정 및 신설 • 中小企業間 下都給去來에 제출 요건 합리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 어음할인료 부담 •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消費者 保護施策 허용, 물품용역에 대한 광고기준 준수
財務委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租稅 관련 19개 법안 • 銀行 관련 7개 법안 • 外資導入法 개정안 • 保險業法 개정안 •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법률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천만원 초과 金融所得에 대한 綜合課稅(96년부터), 법인세율 2%p 인하, 양도소득세율·상속세율·증여세율 인하, 土超稅의 累進稅率 轉換 • 同一人의 銀行株式所有 上限線을 8%에서 4%(금융전업기업가는 12%, 30대 계열기업 배제), 각종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대 및 업무영역 확대(국민은행법은 폐지), 銀行 增資規制 廢止 •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각종 行政서비스 지원, 고도기술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각종 조세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율 확대) • 보험업 진출 및 사업확대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 주주자격의 소급제한규정 삭제, 외국보험사에 대한 차별 철폐 • 政府調達市場의 開放에 대비 國際入札의 규정, 낙찰자 결정방법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
商工 資源委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小企業 관련 8개 법안 • 對外貿易法 개정안 • 工業發展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小企業基本法을 축으로 하여 관련법들을 기능별로 통폐합, 國際規範상 마찰의 소지가 있는 수출지원책·수입조정·산업육성조항 등의 축소 및 폐지, 대기업과의 분쟁 자율조정제도 신설 • 國際規範에 맞도록 무역규제조치 조정, 산업설비 수주계획 신고제도 및 수출기금제도 폐지, 무역대리업의 신고제 전환 • 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지식집약산업·지원서비스업 등 工業의 競爭力 向上과 관련된 분야로 확대,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지원, 退出規制 缓和, 업종전문화 지원

주: ()안은 해당 상임위의 총 심의 법안 수

(정 반석)

<用語解説> 金利危険対策(hedging)技法

- 先渡金利(forward rate)

- 자금의 借入者와 貸與者가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쌍방간에 합의된 契約 金利에 따라 일정 계약 금액(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차입·대여하기로 하는 거래 기법
- 즉 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미래 시점에서 신용이 공여되고 그 후 滿期가 도래하는 일종의 先渡去來로서 先物金利라고도 불리며 金利先物과는 달리 場外市場인 銀行間 市場에서 사용됨
- 예) 어떤 기업이 3개월 후에 자금 차입을 하여야 하나 금리가 현재의 10%에서 상승할 것이 예상될 때는 10%에 先物金利 約定을 매입함. 3개월 후에 금리가 13%가 되면 3%(=13%-10%)의 利子 差額을 선물금리 賣渡人이 선물금리 買受人인 그 기업에게 지급. 만약 금리가 예상과는 달리 7%가 되면 3%(=10%-7%)의 이자 차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 이와 같이 매수인은 금리 상승시나 하락시에 이자 차액의 授受에 의해 10%로 차입 금리를 고정시킬 수 있으므로 금리 변동 위험 회피가 가능함

- 金利先物(interest rate futures)

- 시장 금리 변동에 의한 金融資產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거나 또는 投資收益 중대를 위하여 장래 一定時點에서의 특정 금융 자산의 예상 수익률을 매매하는 거래 기법
- 先渡金利와는 달리 場內市場인 先物去來所市場에서 公開入札 형식에 의해 거래되며 證券을 이용하여 금리 손실을 커버함
- 金利先物去來所에는 미국 시카고의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내에 있는 IMM(International Monetary Market), 영국 런던의 LIFFE(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Exchange), 싱가폴의 SIMEX(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 캐나다의 몬트리올 증권거래소,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선물거래소와 버뮤다의 국제선물거래소가 있음
- 金利先物은 先渡金利와는 달리 거래 규모나 결제일 등 거래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는 단기 금리선물의 경우 短期財務省證券을 이용하여 1백만 달러 단위로 거래됨
- 예) 8월 1일에 어떤 기업이 10월 1일에 자동 갱신되는 3개월 대출 US\$ 1,000,000을 10%에 받았는데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하면 10월 1일 자동 갱신시에 상승된 금리로 차입하므로 손실을 보게 됨. 이를 피하기 위해 이 회사는 3개월 달러 표시 선물 계약 US\$ 1,000,000을 91(=100-9: 선물 계약 가격은 100에서 금리를 뺀 수치로 표시됨)에 매도하기로 약정. 10월

1일에 금리가 상승하여 3개월 달러 표시 선물 시세가 89(=100-11)가 되고 차입시장에서는 금리가 12%가 되어 12%로 대출을 갚으나 차입시장에서의 손실은 $\$1,000,000 \times 2\%(12\%-10\%) \times 3/12 = \$5,000$ 이나 금리 선물 거래 이익인 $\$1,000,000 \times 2\%(11\%-9\%) \times 3/12 = \$5,000$ 에 의해 상쇄됨. 즉 선물시장의 이익에 의해 차입시장의 손실이 커버됨

- 金利옵션(interest rate option)

- 옵션계약의 매입자가 만기일이나 그 전에 특정 가격(권리행사가격)으로 중권을 매도(매도 옵션: put option) 또는 매입(매입 옵션: call option)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금리 위험 헤징 기법
- 금리옵션은 중권이나 유로 달러 등 예금증서를 사용해 이루어지며 가격은 100에서 금리를 뺀 숫자로 표시됨
- 예) 어떤 기업이 3개월 후에 차입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금리 10%에서 3개월 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유로 달러 예금증서를 가격 90(=100-10%금리)에 3개월 매도 옵션으로 매입. 만기일에 금리가 상승하여 13%가 되면 현물시장의 예금증서 가격은 87(=100-13%)이 됨. 이 회사는 현물시장에서 예금증서를 87에 매입하여 90에 매도할 수 있으므로 현물시장에서 상승한 금리 13%에 차입하여도 옵션 거래에서 3%의 이익을 보므로 옵션계약 당시의 금리 10%로 차입 금리를 고정시키게 됨. 만약 금리가 하락하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시장 금리로 차입하면 됨

- 金利스왑(interest rate swap)

- 금리스왑은 金融市場에서 차입자의 既存 負債나 新規 負債에 대한 금리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차입 비용의 절감을 위해 두 차입자가 각자의 借入 條件(金利 條件이나 基準 金利의 종류)을 상호 교환하는 거래
- 주로 同種의 通貨, 同額의 元金, 同日 滿期의 부채 구조를 가진 차입자간의 거래가 대부분임. 계약 당사자간에 이자 지급 의무만 있고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자금의 흐름도 원금의 교환이 없이 利子 差額만이 相互 授受됨
- 예(1) 固定 金利 차입자인 A기업이 변동 금리를 원하는 경우 고정 금리를 원하는 變動 金利 차입자인 B기업과 금리 조건(금리 지급 의무)을 상호 교환할 수 있음
 (2) 금리가 상승 추세일 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고정 금리 차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이 금리스왑에 의해 대기업과 자신의 변동 금리를 교환함으로써 이의 해결이 가능함